

자원연계형 해외진출 관련 기관방문과 전문가 면담

-박광순 선임연구위원(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I. 해외출장 개요

- 출 장 자 :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박광순
- 출장기간 : 2010. 8. 21 ~ 8. 28 (6박 7일)
- 출장지역 : 호주(시드니, 멜버른), 뉴질랜드(오클랜드)

○ 현지 출장일정

일자	일정 및 방문기관 (면담자)
8월 21~22일 (토,일)	- 인천 출발, 시드니 도착 (KE 121)
8월 23일 (월)	- KOTRA 시드니 지사, 김성수 센터장, 최규철 부센터장 임형수 팀장, - SK Energy 호주 법인, 김현수 법인장 - 한국광물자원공사 시드니 지사, 이무영 법인장, 전창건 - External Relations, BHP HQ
8월 24일 (화)	- 시드니 출발, 멜버른 도착 (QF 423) - Melbourne Energy Institute, University of Melbourne/ Dr Roger Dargaville
8월 25일 (수)	- Centre for Energy, Resource and Environmental Law, Professor Golden - Dept of Primary Industries, Victoria Government, Ms Kathy Hill, Executive Director
8월 26일 (목)	- 멜버른 출발, 오클랜드 도착 (QF 025) - Institute of Public Policy, Auckland, New Zealand, Dr. David Wilson/Director
8월 27일 (금)	- Director of Energy Institute, The University of Auckland, NZ, Prof Basil Sharp/ Head of Dept, in Economics
8월 28일 (토)	- 오클랜드 출발, 인천 도착 (KE 130)

II. 출장 목적

○ 연구용역과제 ‘주요국의 해외플랜트 진출사례 및 지원제도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팀과의 공동출장

- 국토연구원 센터장 김성일 박사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진상 교수 등과 공동 일정

○ 자원연계형 관련기관 방문과 전문가 면담

- 선진국(호주, 뉴질랜드)의 자원개발관련 정부 지원정책 조사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기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조사
- 호주 및 뉴질랜드의 에너지 및 자원 정책 주요 시사점 파악

Ⅲ. 출장 조사지역 및 방문기관

1. 호주

- External Relations, BHP HQ
- KOTRA 시드니 지사
- SK Energy 호주 법인
- 한국광물자원공사 시드니 지사
- Melbourne Energy Institute, University of Melbourne/ Dr Roger Dargaville Centre for Energy, Resource and Environmental Law, Professor Golden
- Dept of Primary Industries, Victoria Government, Ms Kathy Hill, Executive Director

2. 뉴질랜드

- Institute of Public Policy, Auckland, New Zealand, Dr. David Wilson/Director
- Director of Energy Institute, The University of Auckland, NZ, Prof Basil Sharp/ Head of Dept, in Economics

Ⅳ. 출장 조사 및 면담내용 (국별 종합)

1. 호주

1) 주요 경제 현안

- 국토면적은 7,682,300km²에 달하며, 남한 면적의 70배가 넘고, 러시아, 캐

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임

- 전체인구는 2,150만명(2009년)에 이르고, 주로 앵글로색슨 80%, 기타 유럽 및 아시아계18%, 원주민 등이 약 2%를 차지하고 있음
- 기후는 서부 40%와 북부의 80%가 열대성, 다른 지역은 온대성 기후로서 전반적으로 온화한 대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30%가 사막임
- GDP는(2008) US10,693억 Dollar, 1인당 GDP는 약 US50,150Dollar에 이 름

2) 주요 인프라 건설계획 및 정부 지원

- 호주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서비스와 1차 산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막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업관련 투자가 전체 민간 투자의 16%를 차지하고 있음. 광물자원의 수출은 연간 554억 달러에 이르며, 전체 수출의 42%를 차지하고 있음.
- 호주의 주된 수출 품목은 석탄과 철광석이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수출품 중에서 8개 항목이 자원관련 품목임.
- 호주 경제는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 불황에도 구하고 비교적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10년의 경제는 2~2.5%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도로, 철도 및 항만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호주건설펀드 (Building Australia Fund)'를 조성하고 각종 프로젝트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Infrastructure Australia은 약 450억 달러 규모의 20개 국가건설 (Nation Building)'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으나, 글로벌 경제난에 따라 민간 기업들의 공동투자가 어렵게 되고, 정부의 호주건설펀드를 통한 공적자금이

부족하여 지연되고 있음

- 정부예산의 적자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인프라 건설을 위한 주정부의 채무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자금조달능력은 한계에 이르고 있음
- 호주의 민관협력프로그램(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인프라 건설 정책지원임
- 호주건설펀드로 약 80억 달러의 가용재원은, 도로, 철도, 항만 등 프로젝트의 성격상 민간 기업의 투자 없이는 소규모의 프로젝트 또는 일부 프로젝트에만 집중 될 것으로 전망
- 민간 부문은 이의 해결책으로 정부의 특별 인프라 채권 발행, 인프라 자금조달에 대한 신규 보장, 건설 산업 자금 지원 펀드인 'RuddBank'의 확장 및 채무조달 확대를 통한 프로젝트 지원 등의 방안을 정부에 요청함.
- 민간부문의 은행 차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은행들은 정부에 투자은행들의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지원에 대해 정부가 보장하도록 로비
- 호주정부로서는 주정부들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이 연방정부가 보장하는 금융기관의 채권보다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저평가됨에 따라 주정부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 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민간부문에서는 호주 정부가 공공부문 노령연금 지원을 위해 설립된 'Future Fund'를 이용하여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정부에 독려하고 있음

3) 주요 자원 및 개발관련 정부의 역할

- 석탄 매장량은 세계4위이며 (전 세계 8.3%보유), 연간 2억7천만 톤을 생

산하고 있음. 가장 큰 수출품목으로 약 179억 달러에 이르고, 철광석은 매장량으로 세계4위 생산량은 1억 9천만 톤에 달하고, 수출 금액으로는 135억 달러에 달함

- 원유 매장량은 35억 배럴로 추정되며, 매년 약 67억 달러 정도를 수출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는 매장량은 세계 9위이며, 매년 약 51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음. 호주는 '70년대 서 호주 북서해상 지역인 North West Shelf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되어 생산을 시작하였음.
- 석유의 주요 매장지역은 서호주의 North West Shelf(매장량 40 Tcf), 남호주의 Cooper/Bass Basin(매장량 10 Tcf)등이며, 그 외 서 호주 주변 해상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음
- 주요 광물매장량은 우라늄(40%), 니켈(36%), 아연(세계 2위), 보크사이트(세계 2위), 금(세계 3위), 망간(세계 3위)등이 있음
- 천연가스는 New South Wales주 및 Tasmania주를 제외한 전역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가장 활발한 지역은 서부호주 북서지역의 Carnarvon 분지임. 이 지역에서는 Northwest Shelf 개발 프로젝트, Greater Gorgon 개발 프로젝트 등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호주 북부지역은 해양가스전이 있으나 매장량이 경제성 확보에 어려운 규모로 추정되고 있음
- 천연가스는 대부분 일본에 수출되고, 우리나라는 한국가스공사에서 NWS로부터 Spot형태로 도입하고 있음.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50만톤 도입을 추진 중임. 중국은 Gorgon 프로젝트(광동 LNG)에서 2007년부터 수입하고 있음

4) 자원관련 정책

- 호주는 정부 차원의 자원개발은, 환경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 평가와 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함
- 자원개발 관련 기업 특별한 지원정책은 없으며, 만약 자원개발을 할 경

우 기업 자체적으로 자본을 마련해서, 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 자원조달을 하고 있음.

○ 지난 5월, 정부는 자원 초과 이익세 (Resource Super Profits Tax)를 제안하였으며, 정책 제안에 따라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었으며, 최근 총선에서 집권당이 과반석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여, 연립내각을 구성할 예정임. 따라서, 자원세금의 시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개의 정부 기관들이 있음.

○ **Government Agencies 정부 기관들**

국가 수준의 광업과 산화수소 산업에서 호주의 정부 기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Department of Resources, Energy and Tourism (DRET):**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s Order에 의해 2008년도 1월 25일에 설립됨. 이 기구의 역할은 산업, 관광, 자원, 교육, 과학, 환경, 물 자원을 관리 하게 됨.

- 자원, 에너지, 관광 부서는 이 분야에 대해 호주 정부에 정책 제언과 지원을 함. 호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속적인 환경의 관리 정책을 통해 지원함.

- **Geoscience Australia:** 자원 개발과 환경 관리, 인프라시설, 관련 분야에 대해 정부 및 사기업에 geo-scientific 정보를 제공. Geoscience Australia는 광물 개발과 토지 사용 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시스템이 구축. 최근의 활동은 탄화수소 개발, 탄산가스 저장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함.

- **National Offshore Petroleum Safety Authority:** 호주의 해안의 유전 개발과 관련하여, 수자원을 규제하는 기관임. 이 공사는 Perth에 지부가 있고 2005년도 1월 1일에 근해 원유 안전 법을 제안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임.

-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mining and oil exploration:** 광산과 원유 개발 관련 정부 기관
-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BARE)** 은 광산과 원유 개발에 대한 호주 경제 연구기관임.
- **Australian Coal Association Research Program:** 호주의 석탄은 가장 중요한 광물 중 하나임. 석탄은 위험과 환경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나 이 기관 연구에 따르면 점점 더 효율적, 안정적인 생산이 되고 있음.
-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Mining Resources:** New South Wales의 Mining Act 1992에서 환경적인 관리 규정을 출판함. 환경 규정 안전은 NSW 의회에 의해 2008년도 5월에 Mining Amendment Act 를 통과시킴. 새로운 규정에서 주요한 변화는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법인 단체가 설립된 것임. 또 이전의 법규에서 광산 활동의 잠재적인 영향력과 법에 의해 규정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조항을 강화, 방해가 되고 비효율적인 관행을 없앴.
- **Queensland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Resource Management:** Queensland 정부의 환경과 자원 관리 부서이며, 그 지역에 자연 환경 자원을 관리하는 부서. 토지, 물을 포함한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정책 설립.
- **Queensland Department of Employ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Innovation:** Queensland 정부의 고용, 경제 개발, 혁신 부서로, 이 지역의 광산 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것임. 퀸즈랜드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량을 차지할 수 있는 300억 톤의 석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 원유와 가스와 같은 탄화수소도 퀸즈랜드에 풍부함. 2008년과 비교하여 2009 년도 원유 생산은 15%가 증가함
- Coal seam gas의 488 billion CM 정도가 저장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됨. 이 중요한 광물은 이 지역에 liquefied natural gas (LNG)산업을 개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됨.

- **South Australia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and Resources (PIRSA):** 지역의 정책을 세우고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담당하는 기관임. PIRSA의 목표는 수출과 투자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하고 경쟁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것임. Mineral Resources Group (MRG)을 통하여 광업 운영과 광물 개발, 질 높고 정확한 정보 제공, 개발과 광산 규정의 지속 가능한 프레임워크 발전, 로열티와 비용을 관리함.
- **Northern Territory Department of Resources: Department of Resources (DOR)**은 어업, 1차 산업, 광업과 에너지 자원에서 산업적인 발전을 위해 북쪽 지역의 정부 기구임. 이 자원 부서 내의 Minerals and Energy Group은 Mining Management Act의 강화를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이 부서는 광업 감사를 실행하고 State Mining Management Policy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관리 감독 함.
- **Tasmania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Energy & Resources:** Tasmania에서 인프라시설, 에너지, 자원의 부서는 경제 분야에 책임이 있음. Mineral Resources Tasmania는 자원 개발이 번영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조항 및 정보를 제공함. 또 로열티와 비용 계획을 관리함.
- **Victoria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DPI):** Victoria주의 농업, 어업, 에너지 산업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 함. 목적은 1차 산업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발전 실행 시키는 것임. Victoria는 석탄, 금, 원유, 금속 등과 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
-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Mines and Petroleum (DMP):** 지역의 자원과 광물 개발에 투자를 증진 시키는 기관임. 이와 관련해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 또한 광물 개발과 관련한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로열티와 비용을 관리하고 환경 규제 및 안전 규제를 강화 시킴.

5) 한국과의 협력 현황

- 호주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자원을 수출해 왔음.

- 우리나라의 자원관련 기업은, 포스코, 한전, 한국광물자원공사, SK 에너지 등이 진출하고 있음.
- 현지에 판매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대한전선, LD 전선,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등이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의 호주 투자는 2009년 33건에 2억 2,500만 달러(USD)에 이름.
-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를 시작한 1969년 이후 2009년 까지 우리나라기업의 호주 투자 총액은 1,142건에 51억4,300만 달러에 달함. 이들 투자 금액 중에서, 약 60%는 광업 분야의 투자임.
- 한국은 호주 NWS 프로젝트로부터 LNG 50만 톤/년 ('04~2016)중기도입 중(07년 1차 연장)이며, '06년 637천 톤의 LNG를 수입(총 수입의 2.6%, 6위).
- 원유도 '06년 35백만 배럴(총 수입의 3.9%)을 수입하는 등 호주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석유·가스 교역 파트너임.
- 우리나라는 중동 중심의 도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호주로부터 원유·가스 도입을 확대하기를 희망
- 기존 LNG 계약 연장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물량의 LNG 교역이 확대·지속되기를 기대
- 확장중인 NWS, Gorgon 및 개발 중인 Browse 등의 생산물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장기수급이 필요
- 한국가스공사는, Browse 프로젝트, 연 200만톤 구매도입 협의 중 (Woodside社)이며, Gorgon 프로젝트, 연 250만톤 구매도입을 협상 중 (Chevron, Shell 등)

○ GS칼텍스: Gorgon 프로젝트 LNG도입 추진 중

- 쉘브론 호주지사 와 HOA 기체결하고, 對호주 LNG도입사업 추진 중

2.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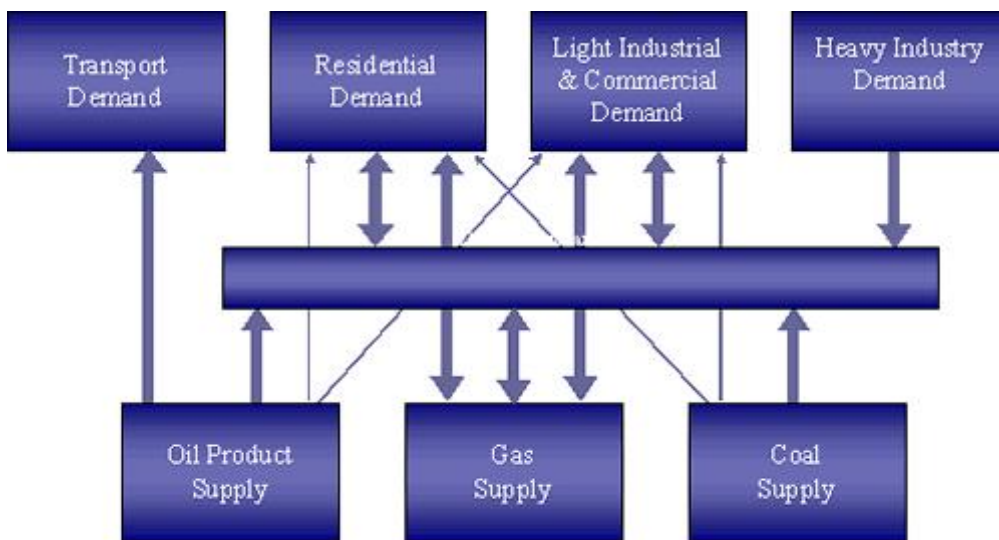
1) 주요 개발 전략 및 자원 현안

- 뉴질랜드는 1인당 국민 소득이 약 27,000달러에 이르며, 농업 위주의 국가로 제조업은 취약하며, 최근 에너지 자원 개발을 서두르고 있음. 국가 경제는 2025년 까지 국민소득을 호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 중임.
- 경제 개발전략을 6개 분야로 집중하고 있으며, 자원개발이 그 중의 한 분야임.
- 해상 유전은 생산을 하고 있으나 약 일일 5만3천 배럴 정도임. 지금도 탐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석탄과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아직 정유설비는 마련되지 않아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자원 보유는 인구비례로 계산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 미개발 되고 있는 자원이 대부분 임.
- 주요 자원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사철 등 다양하며 지속적으로 탐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대부분의 자원 탐사는 AWE, Chevron, Mitsui, Exxon Mobil, Shell 사 및 몇 개의 자국기업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
- 뉴질랜드의 석유 탐사는 Taranaki Basin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2) 자원개발 지원 정책

- 뉴질랜드는 2006년 향후 25년간, 2030년까지 장기 에너지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풍력, 지열 등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30-50% 까지 늘리고, 석탄의존을 줄이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음.
- 뉴질랜드 정부는 자원개발을 위하여, 환경보호에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경제개발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 에너지 개발은, 광물법등을 통하여, 자연보호를 위한 규제 제도가 있음. 그러나 최근 규제 지역에 대한 개발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해상 풍력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계획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국영기업인 Solid Energy 사는 지하에 석탄기화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지하 400미터에 광천을 만들고, 합성가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캐나다의 Ergo Energy 사와 합작으로 추진 예정임.

<그림 1> 뉴질랜드의 에너지 수급전략 개념도



Note: Prices Flow Up, Demand Flows Down

출처: 출장 면담시 자료 협조

3) 한국과의 협력 현황

- 우리나라기업의 뉴질랜드 진출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대 하이크스의 원유, 천연가스 개발탐사 프로젝트가 있음

3. 주요 시사점 정리

- 호주는 우리나라의 자원 확보를 위해서 안전한 투자 대상지역임. 투자 안정성에서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외국 회사의 자원개발 관련 투자에 민간차원에서 실시하고, 정부정책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함. 민간 기업이 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실시하고, 자본은 자체 조달하고 있음.
- 우리나라기업의 투자는 워낙 막대한 자금이 소요 되므로, 탐사 시작 시에 전체 투자금액의 약 10%등을 매입하고, 나중에 지분을 얻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 경영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며, 경영은 호주 기업에서 주도하게 됨.
- 한전의 경우 무연탄 탐사에 4억 달러를 투자하고, 2016년부터 생산하게 됨. 우리나라기업이 광산개발을 직접 추진 할 정도의 기술력이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 광산 운영 경험이 부족한 것이 직접 진출을 어렵게 함.
-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종합상사들이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음.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나, 우리나라기업은 아직 그만큼 자금동원 능력이 없음.
- 호주에 직접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원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연계하고, 탐사는 호주의 전문회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기술 축적을 위해서는 직접 광산 운영 경험을 쌓는 일이 중요함.
- 호주의 인프라건설 펀드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의 주도로 인프라 펀드 조성 규모를 늘려야 할 것임. 중국은 석탄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약

35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준비 중임.

- 외국인 투자 위원회는 5,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과 FTA 실행에 들어간 호주는 8억5천만 달러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함
- 호주와 우리나라의 FTA가 계속 협상중이며, 중국, 인도, 일본 도 FTA를 협상 중이나, 우리나라가 서두를 필요성이 있음.
- KORES의 호주 진출은 왈라라 지역의 광산개발에 대한 허가가 아직 나지 않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반대 입장임.
- 민간기업이 해외에서 탐사를 실시하면, KORES에서 일부 예산 지원을 실시함. 일본은 해외자원자주개발위원회가 있으며, 자원 확보를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광업개발에 상당히 우호적이며, 주정부에서는 구리, 아연 등을 개발하기 위한 탐사에 일부 정부 보조금을 지불함.
- 에너지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은 위험도가 높고, 운영에 직접적인 경험이 많이 부족한 편임.
- SK Energy는 호주 서북쪽 광구에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음. 단독 투자는 어려우며, 석유공사와 컨소시엄으로 참여 중임.
- SK Energy는 한전에 약 7,000-8,000만 톤을 공급하며, 이는 한전수요의 8~9% 정도임.
- POSCO의 석탄과 철광석의 자급률은 약70%에 이르며, 호주에서 약 3억 톤을 충당하고 있음
- WYONG지역의 탄질은 우수하며, 약 연간 400만 톤씩 40년간 생산할 매장량이 있으나, 아직 주 정부의 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음. 약 7억 달러는 투자해야 생산이 가능함

- 호주기업들은, 우리나라의 POSCO와 같은 민간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선호함.
- 우리나라기업의 호주 진출에 대한 문제점 중 하나는 공기업의 경우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함.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우리나라에 자원을 가져오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게 되며, 따라서 의사 결정이 어려움.
-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주가 아니면 결정하기 힘들. 성공을 확신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투자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분참여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임.
- 우리나라는 앞으로 자원 Trading에 참여해야 할 것임. 이는 종합상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을 확보에서 개발, 생산, 판매까지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연계는 자국의 기업이 동반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탐사활동은 호주의 경우, 탐사전문기업에 맡기면 될 것임. 광산운영에 대해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직접 운영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노하우를 쌓아야 함.
- 뉴질랜드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사철 등의 자원 개발에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장기 개발전략을 가지고 있음.
- 뉴질랜드는 해외 석유 다국적 기업의 투자선호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임. 이는 정부의 정책적인 부문과, 투명한 탐사권 정책 등에 대한 합리성임.
- 사철은 성분함량이 높아 가치가 있으며, 채굴해서 직접 선박에 선적할 수 있어 인프라 투자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음.